

가구유형이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

Household Structure and Economic Well-Being*

- Focused on the coresident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the U.S. -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부 교수 김 효 정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ochung Kim

◀ 목 차 ▶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Since the 1990s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about coresident grand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the U.S. This study focused on the coresident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categorized into 6 household structures, and examined whether household structure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affected economic well-being. The data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and Retirement Study (HRS) were used, and frequencies, χ^2 tests,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SPSS Window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yearly household income among the 6 household structures. In addition, household structure affected the economic well-being. Especially, grandchildren in grandmother only, some parents present families, and in grandmother only, no parent families we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those in both grandparents.

주제어(Key Words): 가구유형(household structure),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coresidence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경제복지(economic well-being)

Corresponding Author: Hyochung Kim, Departmen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Obang-dong, Kimhae, Kyungnam 621-749, Korea Tel: 82-55-320-3246 Fax: 82-55-321-9550 E-mail: homehyo@inje.ac.kr

* 본 연구는 2002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 국외연수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I. 서론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의 경우 세대간에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갖는 것은 세대간에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비해 선호되어 왔다(Alwin, 1996). Treas와 Bengston(1987)에 의하면 노인들은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며, 대부분의 성인들은 노인들이 그들의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에서 노인들이 성인자녀나 손자녀, 기타 친척들과 동거하는 가구의 형태는 비전형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현상도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Bryson & Casper, 1999; Fuller-Thomson, Minkler & Driver, 1997; Morris & Winter, 1995), 이러한 유형의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많은 공공정책가들, 학자들, 그리고 매스미디어들은 손자녀가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Burton, 1992; Dowdell, 1995; Joslin & Brouard, 1995; New York Times, 1991; Philadelphia Inquirer, 1994; Shor & Hayslip, 1994), 이들에 의하면 조부모가 손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거나 손자녀들의 양육을 돕는 조부모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증가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구에 있어서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최근의 몇몇 연구만이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소득수준을 살펴보았을 뿐이다(Fuller-Thomson et al., 1997; Jendrek, 1993; Kelley, 1993).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그 가구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가구유형이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가구유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McLanahan & Casper, 1995; McLanahan & Sandefur, 1994). 즉 가구유형은 가구가 활용할 수 있

는 여러 자원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가구유형에 따른 경제적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Amato, Loomis & Booth, 1995; Burghes, 1994; Cherlin, Furstenberg, Chase-Lansdale, Kiernan, Robins, Morrison & Teieler, 1991; Cherlin & Furstenberg, 1994; Cockett & Tripp, 1994; Corak, 1998; Ermisch & Francesconi, 1996; Ferri, 1976; Gregg & Machin, 1999; Kiernan, 1992, 1996; Kiernan & Hobcraft, 1997; McLanahan & Sandefur, 1994; Marmer, 1997; Mott, 1993, Mott, Kowaleski-Jones & Menaghan, 1997; Rodgers & Pryor, 1998; Thomson, Hanson & McLanahan, 1994; Wadsworth & Maclean, 1986; Weiss, 1984) 부부가족, 편부모 가족, 또는 계부모 가족(*stepparent families*)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적 복지를 살펴보거나 이들의 경제적 복지상태를 비교연구하여 왔다. Amato와 Booth(199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지내는 자녀의 경우 낮은 학업 성취, 행동 문제와 심리적 고통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아동의 빈곤은 가구유형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Carlson과 Corcoran(2001)은 가구유형과 경제적 상태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은 아동복지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태는 가구유형과 아동복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적 복지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가구의 유형이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경제적 복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인 특성이외에도 다양한 가구의 유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가구유형을 좀더 세분화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가구유형이 경제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경제적 복지의 개념과 선행연구의 경향

경제적 복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경제적 복지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한 학자는 Pigou(1938)로, 그에 의하면 “경제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일부분으로 화폐 측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 이후, Weckstine(1962)은 “최소한 자원에 의해 욕망이 충족된 정도”를 경제적 복지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가정학회(1982)는 경제적 복지를 개인이나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적정도(economic adequacy), 경제적 안전도(economic security), 경제적 안정도(economic stability)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복지란 개인 또는 가계의 욕구가 충족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적절한 경제적 상태라 할 수 있는데,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가계의 경제적 복지 수준은 가계예산 수립, 미래를 위한 가계의 재정적 준비, 가계의 소비생활 수준 결정시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둘째,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 가계의 생활수준, 나아가서는 삶의 질의 일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강이주·김영신·허경옥, 1999). 경제적 복지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객관적 경제복지와 주관적 경제복지로 구분된다.

1) 객관적 경제복지

객관적 경제복지는 가계소득, 가계자산, 가계의 소비생활 수준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경제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개념이다. 특히 가계소득은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경제복지 평가지표이다. 최근에는 가계소득의 액수보다 가계소득의 안정도에 초점을 두고 가계의 경제복지를 평가하기도 한다(Mammen, Helmick & Metzen, 1983). 한편 가계자산은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가계소득 못지 않게 가계의 경제적 복지 평가에 많이 이용된다(Bauer & Dunsing, 1983). 그리고 가족 수나 가계 구성원의 차이 등에 따라 가계의 욕구 및 소비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 액수나 소비패턴 등의 소비생활 수준도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가계의 총소비지출 액수는 그 가계의 소비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를 통해 만족감이 높아지므로 소비지출 액수가 높으면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강이주 등, 1999).

2) 주관적 경제복지

주관적 경제복지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 또는 재정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나 평가에 의해 측정되는 개념으로, 주관적 경제복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주관적 경제복지는 학자에 따라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MacDonald & Douthitt, 1992; Rudd & Kline 1976; Walson & Fitzsimmons, 1993; Yuen, 1976), 경제적 안정도(Burkhauser & Duncan, 1988), 재정만족도(Danes & Morris, 1989; Davis & Helmick, 1978; Mugenda, Hira & Fanslow, 1990)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다.

2. 미국의 빈곤 비율 현황

가계의 객관적 경제복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가계소득에 근거한 빈곤선을 통해 복지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수행된 Albelda(1999)의 연구를 중심으로 미국의 빈곤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 22%, 1970년대에는 12%, 1980년대 이후 1996년까지 약 2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 비율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빈곤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11.6%)보다는 여성(14.9%)의 빈곤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여성의 빈곤 비율이 높았으

〈표 1〉 미국의 빈곤 비율 현황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령			
18세 미만	20.0	19.7	19.9
18세~65세	13.2	8.7	10.9
66세 이상	13.1	7.1	10.5
인종			
백인	12.4	9.6	11.0
흑인	28.9	23.6	26.5
히스패닉	29.8	24.5	27.1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	29.1	19.6	24.5
고등학교 졸업	12.0	7.4	9.9
대학교 중퇴	8.0	4.7	6.5
대학교 졸업	3.5	2.7	3.1
취업상태			
미취업	22.7	19.9	21.7
취업(전일제)	2.6	2.5	2.5
취업(파트타임제)	14.5	12.9	13.8
계	14.9	11.6	13.3

출처: Current Population Reports(1998), Current Population Survey(<http://ferret.bls.census.gov/cgi-bin/ferret>)

나 특히 66세 이상의 경우 여성의 빈곤 비율이 남성
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27.1%),
흑인(26.5%), 백인(11.0%)의 순으로 빈곤 비율이 높
았으며, 세 인종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의 빈곤비율
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빈곤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여
성의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별로 빈곤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전일제로 취
업한 경우의 빈곤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 여성인 경우 빈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
의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이거나 백인 이외의 인종
인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하지 않은 경
우 빈곤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런 결과는 성별, 인종,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Shapiro &
Tambashe, 2001; Worobey & Angel, 1990;
Zandvakili, 200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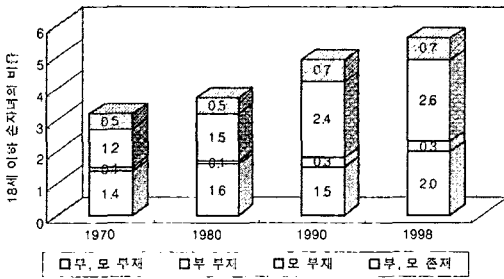
3. 미국의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 비율의 추세 및 특성

1) 미국의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 비율의 추세

Lawton(1981)은 미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거주형태
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서양사회에서 일반적으로
18세)이 될 때까지는 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면 대부분 부모와 떨어져 살며, 결혼
을 하지 않은 성인 상태에서는(배우자와 사별, 이혼,
독신 등) 혼자 사는 것이 어느 정도 규범화되어 있
다(p.59)”라고 밝히고 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
회에서 부모는 성인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생활을 하
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1940~1978년 미국의 인구통계조사를 분
석한 Mindel(1979)은 성인자녀 또는 다른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많은 연구들
(Bryson & Casper, 1999; Crimmins & Ingegneri,
1990; Kobrin, 1981; Morris & Winter, 1995; Spitze,
Logan & Robinson, 1992; Tsuya & Martin, 1992;
Ward, Logan & Spitze, 1992)은 1980년대 이후 노인
이 성인자녀나 손자녀, 다른 친척들과 동거하는 가
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U.S. Census Bureau 자료에
의하면 1997년에 3백만 9천명의 손자녀(18세 이하의
손자녀 중 5.6%)가 조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
녀가 동거하는 가구의 수가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약 76%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1990
년대에 가장 놀라운 증가는 손자녀의 생물학적 부
모가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서 조부모나 조모, 또는
조부가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증가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Bryson & Casper, 1999, <그림 1> 참조).
1997년의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의
약 1/3, 즉 1백만명의 아동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
니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으



〈그림 1〉 미국의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 가구에 있어서 부모 동거 여부의 비율

출처: U.S. Census(1970, 1980), Current Population Survey(1990, 1998).

로 나타났다.

2) 미국의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특성

1992년도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자료를 분석한 AARP 연구에 의하면(Chalfie, 1994),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57세이었고 이들의 1/3정도가 결혼한 상태이었다.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연평균소득이 \$20,000 이하인 비율은 56%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26%와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었다.

한편 손자녀 양육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40세에서 78세 사이의 조부모 41명을 대상으로 한 Kelly(1993)의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56%가 가계재정상의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경우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재정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결핍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 집단 점수와 비교할 때 측정 도구의 9개 하위영역 중 6개 영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44%는 임상적 범위로 고려되는 90백분위수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1992~1994년도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 자료를 이용한 Fuller-Thomson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인 3,477명의 조부모 중 10.9%가 6개월 이상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56%는 적어도 3년 이상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손자녀의 약 75%는 5세 이전부터 조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59.5세이었고, 77%가 조모이었고 흑인의 경우 다른 인종에 비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들의 연평균 가계소득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부모의 연평균 가계소득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3)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증가 요인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증가 요인으로는 첫째, 약물과 알코올 남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Barth, 1991; Feig, 1990).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Drug Abuse(NHSDA)의 조사에 의하면(<http://www.oas.samhsa.gov>), 마리화나, 코카인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세대에 있어서 이러한 약물과 알코올 남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Fuller-Thomson et al., 1997).

두 번째로는 이혼 및 10대 청소년들의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수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다(Harden, Clark & Maguire, 1997). 이혼 비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백인의 경우 1975년에는 20%, 1985년에는 32%, 그리고 1990년에는 35%의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고, 흑인의 경우 1975년에 30%이었던 이혼율이 1990년에는 4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Teachman, Tedrow & Crowder 2000). 한편 10대들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의 경우 15세~19세의 출산율은 미국 전체 출산율의 약 11%를 차지하였고, 10대 청소년 100명당 4명꼴로 미혼모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ttp://www.modimes.org>).

세 번째로 성인자녀의 사망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증가시키는데, 최근의 AIDS는 특히 저소득의 젊은 계층, 그리고 흑인계 미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훨씬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uller-Thomson et al., 1997).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의 유형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 및 빈곤가구의 비율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구유형은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가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한 변수인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도 The 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National Institute on Aging(U01 AGO 9740)의 지원 하에 1992년부터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비례표집을 통해 50세 이상의 22,000여 명을 대상으로 2년을 주기로 하여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는데, 미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험 보상, 경제상태, 가족지원체계, 노동시장 참여 정도 및 은퇴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http://hrsonline.isr.umich.edu>).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0년도 HRS 자료 중 부모세대와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만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837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가구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χ^2 분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빈곤가구를 결정짓는 변수들을 살펴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4. 연구변수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가구가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한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앞에서 미국의 빈곤 비율 현황에서 밝혀진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정의하였다.

1) 종속변수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빈곤가구 해당여부이며, 빈곤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0, 해당하는 경우는 1로 부호화하였다. 빈곤가구의 해당여부를 규정하기 위하여, U.S. Census Bureau에서 제시한 빈곤선(<표 3> 참조)을 토대로 하여 응답자의 가족수와 가족구성원의 연령을 고려하여 연가계소득이 빈곤선 미만일 경우는 빈곤가구로 규정하였다.

2) 독립변수

응답자의 연령은 응답자가 설문조사시에 응답한 생년월일을 통해 계산되었으며, 인종은 백인의 경우 1, 그 외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연수로 측정되었다. 취업 여부는 설문조사시 응답자가 취업한 상태일 경우는 0, 그 외의 경우는 1로 부호화하였다. 자가 소유 여부는 월세, 전세 등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는 0,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1로 부호화하였다.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은 1) 조부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 2) 조부모-손자녀, 3) 조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 4) 조모-손자녀, 5) 조부-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 6) 조부-손자녀 등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2〉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

변 수		정 의
종속변수	빈곤가구	· 연가계소득이 빈곤선 이상일 경우: 0 · 연가계소득이 빈곤선 미만일 경우: 1
	연 령	응답자가 설문조사시 응답한 생년월일을 토대로 하여 현재시점의 연령을 계산
독립변수	인 종	· 백인 이외의 경우: 0 · 백인인 경우: 1
	교육수준	응답자가 공식교육을 받은 연수
	취업 여부	· 취업한 경우: 0 ·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자가 소유 여부	· 월세, 전세 등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0 ·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1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	· 조부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 -손자녀로 구성된 경우: 0 ·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경우: 1 · 조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 -손자녀로 구성된 경우: 2 ·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경우: 3 · 조부-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 -손자녀로 구성된 경우: 4 · 조부-손자녀로 구성된 경우: 5

〈표 3〉 가족규모와 18세 이하의 자녀수를 고려한 빈곤선

(단위: 달러)

가족규모	18세 이하의 자녀수								
	0	1	2	3	4	5	6	7	8명 이상
1명									
65세 미만	8,667								
65세 이상	7,990								
2명									
세대주가 65세 미만	11,156	11,483							
세대주가 65세 이상	10,070	11,440							
3명	13,032	13,410	13,423						
4명	17,184	17,465	16,895	16,954					
5명	20,723	21,024	20,380	19,882	19,578				
6명	23,835	23,930	23,436	22,964	22,261	21,845			
7명	27,425	27,596	27,006	26,595	25,828	24,934	23,953		
8명	30,673	30,944	30,387	29,899	29,206	28,327	27,412	27,180	
9명 이상	36,897	37,076	36,583	36,169	35,489	34,554	33,708	33,499	32,208

출처: U.S. Census Bureau(2000).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조부모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조사대상 가구의 유형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26.0%가 조부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로 구성되었고,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범주형 변수	전 체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부-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부-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F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종	538	64.3	90	68.7	173	58.8	68	50.4	42	84.0	3	33.3	8.18***
	299	35.7	41	31.3	121	41.2	67	49.6	8	16.0	6	66.7	
취업 여부	268	32.0	50	38.2	82	27.9	31	23.0	12	24.0	2	22.2	21.0**
	569	68.0	81	61.8	212	72.1	104	77.0	38	76.0	7	77.8	
자가 소유 여부	349	41.7	121	92.4	227	77.2	91	67.4	42	84.0	7	77.8	41.2***
	488	58.3	10	7.6	67	22.8	44	32.6	8	16.0	2	22.2	
연속형 변수	전 체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부-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부-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F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70.0	9.1	69.1	7.5	70.5	8.9	74.1	10.7	73.9	9.3	74.4	9.5	16.6***
교육수준(연수)	10.6	5.8	11.4	3.3	10.4	6.4	9.8	4.3	9.7	4.1	10.0	4.8	1.6
계	837(100.0)		131(15.7)		294(35.1)		135(16.1)		50(6.0)		9(1.1)		

p<.01 *p<.001

는 15.7%, 조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5.1%,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16.1%, 조부-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6.0%, 그리고 조부-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1.1%를 차지하였다. 즉, 부모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조사가구의 41.7%가 조부와 조모가 함께 동거하는 형태이었고, 조부모 중 한쪽이 없는 경우 조부와 동거하는 비율(7.1%)보다는 조모와 동거하는 비율(51.2%)이 많았다. 그리고 부모가 없이 조부모나 조모, 또는 조부와 손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가구의 수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70.0세이었고, 가구유형에 따라 평균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서 조부-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세대주 평균연령은 74.4세로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또한 조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나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와 같이 조부가 없는 가구의 경우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백인 이외의 인종이 많았고,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2.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 및 빈곤가구의 비율

1)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가계소득의 평균은 \$30,740.2이었고 6개의 세분화된 가구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조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조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부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 연가계소득은 \$46,359.7로 가장 많은 반면, 조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 연가계소득은 \$17,353.1에 불과하였다. 조부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 소득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가족원의 수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많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부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해보았을 때 조부모의 평균 연령이 낮고 취업한 비율도 높으며 교육수준도 높아,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보다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에 따른
빈곤가구의 비율

<표 3>에서 제시되었던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에 따른 빈곤가수

<표 5>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

(N=837, 단위: 달러)

가구유형	평균	표준편차	F 값
조부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46,359.7	54,815.8	12.8***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42,465.6	29,219.9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17,353.1	23,036.0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21,666.9	55,199.3	
조부-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36,758.2	95,761.1	
조부-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21,707.2	21,070.3	
전 체	30,740.2	47,888.9	

***p<.01

〈표 6〉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유형에 따른 빈곤가구의 비율

가구유형	가구수	빈곤가구		χ^2 값
		빈도	백분율	
조부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218	44	14.5	114.8***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131	15	5.0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294	157	51.8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135	71	23.4	
조부-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59	14	4.6	
조부-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9	2	.7	
전체	837	303	36.2	

***p<.001

의 수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전체 837가구 중 36.2%인 303가구가 빈곤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전체 294가구 중 51.8%인 157가구가 빈곤가구에 속해 다른 가구에 비해 빈곤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빈곤가구 비율은 23.4%로 나타나서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 중 조부없이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3. 빈곤가구를 결정짓는 요소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빈곤가구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연령, 인종, 교육수준, 취업 여부, 자가 소유 여부, 가구의 유형이 빈곤가구의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조부나 조모가 연령이 많을수록, 백인이 아니며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하지 않았으며,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고,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노인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은퇴를 하게 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될 기회가 적어짐에

〈표 7〉 빈곤가구를 결정짓는 요소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Exp(B)
연령	.03*	.01	.97
인종a)	-.53**	.19	.59
교육수준	-.26***	.03	.77
취업 여부a)	1.89***	.25	.15
자가 소유 여부a)	-.72**	.24	.49
가구의 유형a)			
조부모-손자녀	-.61	.37	.54
조모-부모b)-손자녀	1.64***	.26	5.15
조모-손자녀	1.44***	.31	4.22
조부-부모b)-손자녀	.23	.43	1.26
조부-손자녀	-.42	.91	.66
-2Log 우도		734.79	
χ^2 값		360.96***	

*p<.05 **p<.01 ***p<.001

a) 다음과 같이 가변수로 설정되었음.

인종: 백인 이외의 경우=0, 백인인 경우=1

취업 여부: 취업한 경우=0, 취업하지 않은 경우=1

자가 소유 여부: 월세, 전세 등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0,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1

가구의 유형: 조부모-부모-손자녀=0, 조부모-손자녀=1, 조모-부모-손자녀=2, 조모-손자녀=3, 조부-부모-손자녀=4, 조부-손자녀=5

b) 여기서 부모는 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함.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인이 아닌 경우에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망률이 매우 높고 혼외출산을 및 이혼율이

높아 편모나 편조모 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Chelin, 1992; Glick, 1997; Sweet & Bumpass, 1987; Worobey & Angel, 1990). 또한 취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연령, 인종, 교육수준, 취업 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결과들(Albelda, 1999; Shapiro & Tambashe, 2001; Worobey & Angel, 1990; Zandvakili, 2000)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외에도 가구의 유형도 빈곤가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McLanahan & Casper, 1995; McLanahan & Sandefur, 1994), 가구의 유형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거나 조부가 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보다는 조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빈곤가구가 될 확률이 많아, 많은 조모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동거하지 않고 조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는 조부가 동거하거나 부모가 동거하는 가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성인 가족구성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가구 중 특히 조부없이 조모가 혼자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보다 많은 사회적인 관심 및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노인가구 형태 중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유형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더불어 가구유형이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년도 미국의 HR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χ^2 분석,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유형을 1) 조부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 2) 조부모-손자녀, 3) 조모-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 4) 조모-손자녀, 5) 조부-부모(부·모 모두 동거하거나, 부·모 중 한쪽만 동거하는 경우 포함)-손자녀, 6) 조부-손자녀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부모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조사가구의 2/5가 조부와 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었고, 조부모 중 한쪽이 없는 경우 조부와 동거하는 비율보다는 조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많았다. 그리고 부모가 없이 조부모나 조모, 또는 조부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수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가구의 유형에 따라 연가계소득의 차이가 있었는데, 조부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 연가계소득이 가장 많았고,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 연가계소득이 가장 적었다. 또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 가구의 유형에 따른 빈곤가구의 수를 살펴보면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순으로 빈곤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 중 조부없이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빈곤가구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 인종, 교육수준, 취업 여부, 자가 소유 여부, 가구의 유형이 빈곤가구의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조부나 조모가 연령이 많은 경우, 백인이 아니며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하지 않았으며,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고,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볼 때, 그 동안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갖는 것을 서구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인식해왔지만, 가족조력(family assistance)의 규범에 기초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에서도 조부모의 양육 활동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를 세분화하였을 때 조부모 중 한쪽이 없는 경우 조부와 동거하는 비율보다는 조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많았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의 평균수명을 비교해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길고,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규범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가구유형도 빈곤가구의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가구에 비해 조부가 없이 조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즉 조모-부모-손자녀로 구성되거나,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Albelda, 1999; Aponte, 1991; Bianchi, 1999; Ehrenreich & Piven, 1984; Goldberg & Kremen, 1990; Minkler & Stone, 1985; Pearce, 1978; Scott, 1984; Tienda & Jensen, 1988),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참여도 쉽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임금수준도 낮아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인이 아닌 경우 백인에 비해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일 경우 성별과 인종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기 때문에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 비해 재혼의 비율도 낮기 때문에 조부 가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조모 가구가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정서적,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특히 부모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 조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조부모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Kelley, 1993),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손자녀들도 다른 가구에 비해 학업의 지속문제나 보편혜택 정도,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영양섭취로 인한 신체적 건강문제 등과 같은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특히 취업을 원하지만 어린 손자녀가 있어 취업이 어렵거나, 조부모가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상으로 손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에 초점을 두어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제적 복지수준을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가구의 유형을 좀더 세분화하여 빈곤가구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복지수준에 있어서 가구유형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단일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가구유형에 따른 적합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계의 객관적 경제복지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계소득 이외에도 가계자산이나 소비지출 패턴, 보험 가입 수준 등도 포함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지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가구 유형을 살펴본 연구들은 노인부부뿐만 구성된 1세대 가구의 증가 및 노인 1인가구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거의 없다. 비록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대

중매체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가계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중앙일보, 2004). 특히 최근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 손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손자녀 부양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제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들의 경제적인 실태 파악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이주, 김영신, 허경옥(1999). 가계경제학의 이해. 학지사.
- 이승신, 김기욱, 김경자, 심 영, 정순희(2003). 가계경제분석. 신정.
- 중앙일보(2004). 3월 29일 기사.
- Alwin, D. (1996). Coresident beliefs in American society: 1973 to 1991.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393-403.
- Amato, P. R., Loomis, L. S. & Booth, A. (1995). Parental divorce, marital conflict, and offspring well-being during early adulthood. *Social Forces*, 73, 895-916.
- Bryson, K. & Casper, L. (1999). *Co-resident grandparents and their grandchildren*.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 Burghes, L. (1994). *Lone Parenthood and Family Disruption: The Outcomes for Children*. London: Family Policy Studies Centre.
- Burkhauser, R. V. & Duncan, G. J. (1988). Life events, public policy and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n J. L. Palmer and I. V. Sawhill (Eds.). *The Vulnerable* (pp. 55-87).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s needs. *The Gerontologist*, 32, 744-751.
- Carlson, M. J. & Corcoran, M. E. (200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779-792.
- Casper, L. M. & Bianchi, S. M. (2002). *Continuity & Change in the American Famil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herlin, A. J., Furstenberg, F. F., Chase-Lansdale, P. L., Kiernan, K. E., Robins, P. K., Morrison, D. R. & Teieler, J. O. (1991). Longitudinal studies of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cience*, 252.
- Cockett, M. & Tripp, J. (1994). *The Exeter Family Study: Family Breakdown and its Impact on Children*. Exeter: University of Exeter Press.
- Corak, M. (1998). *Death and divorce: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parental loss*. Paper presented at the 2nd CILN Conference, Burlington, Ontario and available from Statistics Canada, Ottawa.
- Crimmins, E. & Ingegneri, D. G. (1990). Interaction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Past trends, present determinants, future implications. *Research on Aging*, 12, 3-35.
- Current Population Survey (1990). *March Supplements*.
- Current Population Survey (1998). *March Supplements*.
- Danes, S. M. & Morris, E. W. (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Family Economic Issues*, 10, 205-215.
- Davis, E. P. & Helmick, S. A. (1978). Composite measure of financial satisfaction: An analysis of two indices. In M. M. Dunsing (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pp. 27-39). University of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Dowdell, E. B. (1995). Caregiver burden: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 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3, 27-30.
- Ermisch, J. F. & Francesconi, M. (1996). *Family Matters*. CEPR Discussion paper No. 1591.
- Feig, L. (1990). *Drug exposed infants and children: Service needs and policy question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 Ferri, E. (1976). *Growing up in a one-parent family*.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Fuller-Thomp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 406-411.
- Gregg, P. & Machin, S. (1999). *Child development and success or failure in the youth labour market*.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 397. London School of Economics.
- Harden, A. W., Clark, R. L. & Maguire, K. (1997). *Informal and Formal Kinship Care*. Washing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Assistance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09-621.
- Kelle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331-337.
- Kiernan, K. E. (1992). The impact of family disruption in childhood on transitions made in young adult life. *Population Studies*, 46, 213-234.
- Kiernan, K. E. & Hobcraft, J. (1997). Parental divorce during childhood: Age at first intercourse, partnership and parenthood. *Population Studies*, 51, 41-56.
- Kobrin, F. E. (1981). Family extension and the elderly: Economic, demographic, and family cycle factors. *Journal of Gerontology*, 36, 370-377.
- Lawton, P. M. (1981). An ecological view of living arrangements. *The Gerontologist*, 21, 59-66.
- MacDonald, M. & Douthitt, R. A. (1992). Consumption theories and consumers' assess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 243-261.
- Mammen, S., Helmick, S. A. & Metzen, E. J. (1983). Financi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In M. M. Dunsing (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pp. 8-13). University of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Marmer, J. K. (1997). *Differential outcomes among children living in different types of single-mother famili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C.
- McLanahan, S. S. & Casper, L. M. (1995). Growing diversity and inequality in the American family. In R. Farley (Ed.). *State of the Union: American in the 1990s*. vol. 2.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cLanahan, S.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del, C. H. (1979). Multigenerational family household: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he Gerontologist*, 25, 351-357.
- Morris, E. W. & Winter, M. (1995). *Two-way transfers in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Sain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Department of Design, Housing, and Apparel.
- Mott, F. (1993). *Absent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Monograph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Columbus, OH: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 Mott, F., Kowaleski-Jones, L. & Menaghan, E. G. (1997). Paternal absence and child behavior:

- Does a child gender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103-118.
-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 (1990). Assessi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 343-360.
- New York Times (1991). *More and more*, grandparents raise grandchildren. April 7.
- Philadelphia Inquirer (1994). *Raising the grandchildren*. March 2.
- Pigou, A. G. (1938). *The Economics of Welfare*. London: MacMillan.
- Rodgers, B. & Pryor, J. (1998). *Divorce and Separation: The Outcomes for Childre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Rudd, N. M. & Kline, K. L. (1976). Money measure of consumption and income of rural families: Two measure of economic stat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 217-236.
- Shor, R. J. & Hayslip, B. (1994). Custodial grandparenting: Implications for children's developments. In A. Godfried and A. Godfried (Eds.). *Redefining Families: Implications for Children's Development* (pp. 171-218). New York: Plenum.
- Spitze, G., Logan, J. R. & Robinson, J. (1992). Family structure and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among elderly nonmarried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47, s289-296.
- Teachman, J., Tedrow, L. & Crowder, K. (2000). The changing demography of Americans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34-1247.
- Thomson, E., Hanson, T. L. & McLanahan, S. S. (1994).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being: Economic resources versus parental behaviors. *Social Forces*, 73, 221-242.
- Tsuya, N. & Martin, L. G. (1992).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Japanese and attitudes toward inheritance. *Journal of Gerontology*, 47, s45-54.
- U.S. Census(1970).
- U.S. Census(1980).
- U.S. Census Bureau(2000).
- Wadsworth, M. E. J. & Mclean, M. (1986). Parents divorc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 145-159.
- Walson, C. O. & Fitzsimmons, V. S. (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 193-214.
- Ward, R., Logan, J. & Spitze, G. (1992). The influence of parent and child needs on coresidence in middle and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209-221.
- Weckstine, H. (1962). Welfare criteria and changing tas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2, 133-153.
- Weiss. R. S. (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5-127.
- Yuen, J. C. (1976). *Determinants of the wife's perception of economic well-being among disadvantaged families*. Ph.D. Dissertation in University of Illinois.
- <http://ferret.bls.census.gov/cgi-bin/ferret>
<http://hrsonline.isr.umich.edu>
<http://www.modimes.org>
<http://www.oas.samhsa.gov>

(2004년 4월 29일 접수, 2004년 9월 2일 채택)